

전문가칼럼④ '내 발길이 닿는 곳에 흔적을 남기지 말자'

나효우 사회적기업 ㈜착한여행 대표이사

단풍이 물드는 가을입니다. 산과 계곡에는 단풍놀이와 계곡 바람에 무더웠던 여름을 씻어내는 나들이객들로 붐빕니다. 요즘 같은 온난화 시대는 여름이 끝나면 금방 겨울이라, 짧은 가을 정취를 잠시나마 맛보기 위해 서둘러 산과 계곡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찾는 이들도 한해에 1천만 명이 넘어서지 오래입니다. 하루에 3만 여 명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해외 오지를 가도 한국 관광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집에서 쌓인 온갖 스트레스를 벗어나 잠시나마 낯선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행에는 "다음 기회"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영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동남아시아 3대문명 발흥지를 꼽습니다. 버마의 바간, 인도네시아 아체, 그리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바로 문화역사 유적지로 한번쯤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중에 앙코르와트의 유적지는 1천여 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와 힌두교의 종교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당시의 일반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에 꼭 가봐야 할 곳을 손꼽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유적지 중에 나는 "따프롬"사원에 매료되어서 몇 번이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따프롬 사원 유적지를 복원하는 현장 소장님을 알고 있어서 여행자와 함께 소장님의 유적지 복원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과 알루미늄 성분이 강한 라테라이트(홍토)와 사암으로 만들어진 사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풍화와 침식, 그리고 스펡나무가 그 위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라테라이트는 열대기후지역에 생성된 토양인데, 수개월간 계속되는 우기철에 내리는 비로 인해 토양은 떠내려가고 비교적 무거운 성분인 철, 알루미늄 등 성분들이 남게 되고 다시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라테라이트라는 단단한 석재로 탄생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펡나무가 구멍이 숭숭나있는 라테라이트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사원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원 복원 소장님은 이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죽게 되고 결국 나무의 뿌리와 함께 어울려 있던 석조물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기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완전한 복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복원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복원이라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사원을 복원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복원하되, 교육을 위해 일부러 무너진 곳도 남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유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보고 이야기를 듣는 여행은 감동이 더욱 큼니다.

그런데 이 스펡나무에 어쩌다 선명한 한글 글씨로 쓰여진 이름들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살아있는 천년의 나무에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이 산 바위에 이름 석자를 남겨두고 자랑스러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데 생각하면서 얼굴을 붉힙니다. 하물며 천년의 나무에 그렇게 한글을 남겨서 지구촌 사람들의 부끄러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흔적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 본 글은 삼성엔지니어링 '꿈나무 푸른교실'의 '전문가 칼럼'으로도 게재됩니다. (www.e-gen.co.kr)

주부 환경교실 '가족과 함께 하는 남이섬 환경 나들이'

10월 말의 화창한 가을날, 환경부 후원, (사)환경교육센터 주최의 주부대상 환경교실이 생태의 공간 '남이섬'에서 참가자의 가족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텃밭 전문 강사로 친구들에게 '지렁이 선생님'으로 더 잘 알려진 김안나 선생님, 자연놀이 전문가 김묘경 선생님,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의 임윤경 국장님의 지도 아래 '집에서 가꾸는 심지 화분', '주변의 자연물로 매직북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의 주제로 가족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후 쓰레기통으로 갈 뻔 했던 페트병이 양파 모종을 위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페트의 주둥이 부분을 쓱삭 잘라 거꾸로 뒤집으니 훌륭한 물빠짐 구멍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에 맞춰 물을 주고 적정 온도에서 정성껏 기르면 내가 직접 기른 양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족별로 자루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보리와 유채 등의 씨앗을 심고 듬뿍 물을 준 후 쌀쌀해진 날씨에 모종이 얼거나 새, 다람쥐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지봉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속 보물찾기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길쭉한 모양, 둥근 모양의 자연물, 무언가의 씨앗,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연물, 자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찾기 등 다양한 자연물을 섬 곳곳에서 찾아본 후 찾아온 보물들을 이용하여 매직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펼치고 접을 때마다 자연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매직북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이섬 환경학교에서는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천연차가물을 이용하여 몸에도, 자연에도 좋은 생활용품 만들기는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알록달록 예쁘고 향기로운 비누가 마치 한창 단풍 흐드러진 남이섬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날 남이섬의 날씨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청명한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의 섬 이곳에서 친환경 체험을 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주부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식품 첨가물', '전통 발효식품'을 주제로 한 '친환경 먹거리 알기와 직접 만들어보기', '천연재료를 이용한 샴푸 만들기', '지구구를 위한 즐거운 불편 실천하기', '천연 밀랍초, 화장품 만들기' 등의 알찬 내용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속 깊이 파고들어 자연과 삶을 병들게 하는 화학 물질과 식품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던 변화의 첫걸음, 실은 조그만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이 지구의 건강도 돌볼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프로그램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 문홍은 간사



회원 안내

1. 회원 정보(변경, 신규)를 알려주세요.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회원정보는 회원님과 센터간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서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꼭! 연락바랍니다.
2. 회원님들의 소식지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지 <함께사는길>을 받아보시는 일반회원은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어린이환경놀이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사)환경교육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나 해당 월에 회비가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단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장 소식

남이섬환경학교

www.ecoschool.or.kr ☎032-580-8123

※10월 남이섬 환경학교 소식

사람들이 남이섬의 가을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들어오는 10월, 남이섬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가을빛을 선물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함께 환경학교에는 수확(?)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무액자나 시계 등의 체험을 할 때 쓰이는 자연물의 채집 시기가 이 때인 것입니다. 동글동글 콩처럼 생긴 등나무 열매, 빙그르르 돌면서 떨어지는 게 신기한 단풍나무 씨앗, 초코렛 같은 때죽나무 씨앗, 도토리가 날겨놓은 모자 등등 여러 가지 자연물을 틈틈이 남이섬을 돌며 채집했습니다. 활동가 두 명이 자연물을 줍고 있으면 꼭 아주머니들이 뭘 따는지,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치만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두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기 좋은 자연물들이지요. 가을이 선물해준 것들이 새삼 고마워지는 때입니다.



판교생태학습원

http://www.pecedu.net ☎031-8016-0100

※11월 판교생태학습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	이름	대상	정원	시간	내용
교육	환경예술학교	7~10세 아래미	20명/ 회	토요일 4회 일요일 4회	가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현재 활동 중인 예술작가와 함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양시내 작가의 <나뭇잎과 병뚜껑> 라 작가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앤들핀 작가의 <마블링 나무받침> 배지훈 작가의 <장작개비 로봇의 글쓰기 여행>
	에너지학교	7~10세 아래미	20명	토요일 오전	에너지 생성과 활용, 절약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시간
전시	어린이 자연그림대회 수상작 전시회			11월 23일	<어린이자연그림대회-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생각하며> 수상작 전시회



▲(10월 19일 숲속의 예술공작소 행사 사진)

▲(어린이자연그림대회 수상작 중 일부)

도봉환경교실

http://www.ecoclass.or.kr ☎02-954-1589

※10월 도봉환경교실 소식

도봉환경교실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주위의 나무들이 화려한 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뜨겁던 햇빛이 바람에 식어갑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10월의 도봉환경교실에는 초당초1학년 학생들과 등근달 어린이집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나뭇잎을 함께 관찰하고, 하얀 손수건을 치자로 노랗게 물들여 밝은 미소와 함께 담아갔습니다. 또 도봉환경교실에서는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주제로 10월의 가을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300분 정도가 오셔서 소풍을 함께 즐겨 주셨습니다.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도봉환경교실을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의 도봉환경교실 주요 프로그램

▶절기로 만나는 환경이야기(겨울절기)

- 일 시 : 11월~1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 장 소 : 도봉환경교실 시청각실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20명
- 내 용 : 24절기 중 11월~1월의 절기에 대해서 알고, 절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 봅니다.

♣ 활동 소식

※ 2013년 친환경대전이 코엑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9일~11월 1일 코엑스에서 펼쳐진 2013년 친환경대전에서 (사)환경교육센터는 체험존의 약 20여 개 단체의 부스를 총괄하였습니다. 친환경 먹거리, 업사이클링, 텃밭,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시장은 견학을 온 초, 중, 고등학생들로 행사기간 내내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을 접해본 지 학생들은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보였으며, 체험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교재, 교구를 전시하고 소개하며 학생들이 친근하게 환경이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부스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재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상기시키는 '북극곰이 위험해' 젠가 게임과 멸종위기종 동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도전, 에코벨' 게임이 특히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친환경대전!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2회 전국환경탐구대회 최종 발표 및 시상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공나무 푸른교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2회 전국환경탐구대회'가 최종 발표와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 중등 각 15팀이 지난 6개월간 '모두를 위한 물'을 주제로 한 동아리 활동을 모든 참가팀과 심사위원, 시민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환경꿈나무들이 지구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됩니다. 회원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일시 : 2013년 11월 16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국제회의장(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소재)

♣ (사)환경교육센터 2013년 9월 결산보고

수 입			지 출		
계정	금액	내역	계정	금액	내역
전월이월액	94,191,535		생계비	14,445,000	9월분 생계비
회비	3,081,740	cms회비	제수당	400,000	남이섬현장수당
후원금	2,061,700	개인후원금외	복리후생비	5,140,300	식대,추석교통비등
자체교육사업			여비교통비	907,260	시내교통비 외
환경학교	8,799,012	체험수입 외	업무추진비	141,000	회의비,운영비등
외부교육사업	18,950,012	틀무원공물꾸는단비	지급수수료	36,000	프로그램사용수수료외
기타교육사업	901,278	DES2 연구비환급	사무용품비	1,044,610	노트북 구입
프로젝트사업	20,000,000	두물머리 생태학습 사업	발송비		우편발송비
교재교구구매	4,803,296	환경놀이책판매 외			
9월수입합계	58,597,026		인쇄비	1,658,000	환경야놀자 책 인쇄
		잔 액			
프로젝트사업비	122,419,425		관리비	101,100	사무국관리비
일반 수입	30,369,136		통신비	130,890	전화요금외
			수도광열비,전력비	189,080	상하수도요금외
			지급임차료	1,000,000	사무국임차료
			교재,교구구입비	17,500	교구구입등
			외부교육사업진행비	8,390,200	정년학교,찾아가는환경교실외
			프로젝트사업진행비	13,714,512	그린디자인프로젝트친환경대전
			9월지출합계	47,315,452	두물머리생태학습
			차월이월	105,473,109	



생명 - 인생

남궁산 판화가 / (사)환경교육센터 이사

9월 후원 회비를 보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

새롭게 회원이 되어주신 김동순, 김현정, 노태호, 이재영 님 감사합니다!

새싹회원

강유신 김다경 김민수/김명수 김민영 김재형 김휘준 박가영 박순애 박유하 박희인 신동희 연상혁 오광석 오명선 옥성희 유누리 유다는 유성민 유지연 윤희섭 이경재 이선주 이예진 이윤희 이정숙 이지원 이현재 이호영 임동아 장원석 정수진 조연호 조해인 주지숙 차효재 한상훈 함다정 함상우

나무회원

강응열 고경택 고대현 고영연 고은경 곽원영 곽태성 곽혜영 구수정 구수진 구인숙 구재형 권은희 권정희 김국태 김덕성 김동명 김동현 김두림 김룻 김명기 김미숙 김미화 김민 김민경 김민혜 김석봉 김성호 김성훈 김세용 김안나 김영선 김윤원 김은구 김재석 김주홍 김지선 김진희 김향수 김혜진 김호영 김효진 김희경 남미리 남성정 노현기 마은희 마해미 문경식 문홍은 박금자 박민영 박병삼 박종권 박평수 백경화 변현숙 서은정 설희순 성이혁수 송병일 송상용 송유권 송현석 송현주 신원혜 신경준 신안나 신원임 신정미 심문선 양은화 양진영 양혜윤 여수연 염형철 오수경 오숙희 오연숙 우영미 원대환 위희연 유관호 유향주 윤세희 윤소영 윤애영 윤현숙 이계숙 이기영 이덕희 이동철 이란 이선호 이성민 이수중 이시재 이영남 이영자 이윤숙 이은영 이재하 이정아 이정원 이종석 이주연 이주희 이지숙 이창규 이창현 이향숙 이현진 임양진 임윤정 임지애 임혜선 임혜연 임혜영 장매희 장미희 장서문 장선영 장이정수 장지는 전성실 전소영 정대수 정문정 정새롬 정수경 정순자 정영숙 정우진 정원철 정진영 정형균 조경현 조정희 조종래 조혜수 조혜진 주지은 진주리 채욱경 최민주 최선민 최왕열 최임호 최재복 최재숙 하시내 한혜정 허민영 홍숙희 홍장미 황민영 황상규

숲회원

고동석 권혜숙 김광범 김동준 김래원 김유성 김은정 김인호 김철민 박민영 박태현 서명숙 오유정 오재규(선명레이저) 윤석빈 윤선주 이대연 이미애 이상희 이승행 이시연 이재영 이재하 이진복 임수연 정한철 정현미 조행신 주현재 최재순 한원형 홍현숙

기업/단체회원

금사어린이집 대진유치원 물빛어린이집 샘터유치원 성덕어린이집 성모유치원 성산어린이집 성수어린이집 성원어린이집 성일어린이집 엔젤어린이집 자연과디자인(정태성) 자연유치원 조남희 진터마루어린이집 한울림(곽미순)

평생회원

곽미순(한울림) 김광범 민여경 박은경 오창길 오충현 이대형 이병준 이수종 장미정 정철 서주원